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7월 26일(일) 제1599호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7월 27~31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새벽기도회 설교 영상 상영, 31일 추모예배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를 추모한다.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를 맞아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되고, 7월 31일(금)에는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회 설교 주제와 본문은 7월 27일(월) '복음의 빛진자' (롬 1:8~15), 28일(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롬 10:14~21), 29일(수) '하나님은 자기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롬 11:1~10), 30일(목) '구원의 삶, 몸을 드리라' (롬 12:1), 31일(금) '구원의 축복' (롬 11:33~36)이다.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추모예배는 7월 31일(금)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가 사회를 보고,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블러썬챔버 특송,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메시지, 이재훈 위임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추모 게시판에도 성도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변화 등을 고백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CGN 풍당에서는 '하용조 목사 특별관'을 공개했다.故 하용조 목

사 성경 강해 시리즈와 주제별 말씀, 특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QR코드 참고).

문의: 02-868-8425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열기 뜨겁다!

해외 146팀 2,609명, 국내 200팀 4,689명 참가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해외 55팀 1,126명, 국내 35팀, 1,630명, 대학청년부 해외 59팀 959명, 국내 138팀 2,493명, 차세대 해외 32팀 524명, 국내 27팀 566명이 참가한다. 총 해외 146팀, 2,609명, 국내 200팀, 4,689명이다(7월 24일 기준).

임현진 형제(SNSCross청년부)는 "낮선 땅에 아웃리치 와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미디어사역본부는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8월 31일(월)까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와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onnuri.acts29) 태그,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응모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A4용지 1장 분량의 간증과 가로형 사역 사진, 작성자 최근 정면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제출하면 8~9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 박지혜 기자

우누스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8월 8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우누스오케스트라(단장 김용섭)가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Connect with'를 개최한다. 오는 8월 8일(토)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우누스오케스트라와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 성안교회(위임목사 류정길)와 우누스오케스트라 학부모회가 후원한다.

우누스오케스트라는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다. 10여 년 전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린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우누스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이어졌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누스오케스트라, 첼리스트 김영환,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 사랑퀸텟(Sarang Quintet, 사랑챔버 소속 5중주팀) 등이 공연



한다. 'Over The Rainbow / You Are My Sunshine', '아주 먼 옛날', '첼로 모음곡 1번', '파사칼리아', '나바라', '쥬피터', '신세계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

문의: 010-5645-5450

02-3215-3263

/ 홍하영 기자

차세대, 믿음으로 여름나기

차세대가 믿음으로 여름나기를 실천한다. 8월 말까지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 여름 캠프, 아웃리치를 한다.

'QT하고 수박먹자'는 7월 20일(월)부터 8월 15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총 24일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QT' 4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모든 일정을 완주한 차세대에게는 수박 간식을 선물로 준다. 차세대 여름캠프와 아웃리치는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예수님의 꿈아이와 꿈이자라는땅 여름캠프는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주제로, 파워웨이브는 '돌과'를 주제로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과 외부에서 개최한다.

올해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32팀 524명, 국내 27팀 566명이 참가한다. 문의: 02-3215-3521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15절).

이 말씀 순서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15절만 읽으면 제자도는 하나의 율법적인 숙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가 지킬 힘을 받도록 아버지께 구합니다(16절). 예수님은 명령만 남기고 떠나시는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되,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공급하심과 함께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구한 대로 능력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자도는 내 힘으로 버티고,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걷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요 7:39).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면 먼저 죄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이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행 2:33).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연결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선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제자도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께 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표현에는 깊은 위도가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혜사는 제자들 곁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 속에 계시실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다른 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실 것이기 때문이다”(17절).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함께 계시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십니다. 옛 언약, 곧 모세의 율법 아래 계명은 돌판에 새겨져서 사람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계명은 무엇이 옳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힘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계명을 돌판이 아닌 마음 판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겔 36:26-27). 제자도의 능력은 나의 결심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 있습니다(엢 2:1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18절).

당시에는 스승을 잃은 제자도 ‘고아’라고 불렸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은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는 재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처럼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19-20절).

‘그날에’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사림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림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21절).

15절 말씀이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고, 다시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대로 반복이 아닙니다. 약속 하 나가 더해져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순종함으로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제자들이 따르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26절).

성령님을 생각할 때 특별한 체험이나 현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내면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5:5).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갈 5:16).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갈 5:24-25).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가 될 때 성령님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결단과 결심보다,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과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가 홀로 건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 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곁에 계신 분이 제자들 안에 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결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체험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그리스도인은 동성 결혼식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동성 결혼식을 위해서도 케이크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못되게 구는 거라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 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을 정말 기쁘게 해 줄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동성 결혼식을 위해 케이크를 굽거나 장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동성 결혼식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친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사랑은 죄를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과 죄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

해야 하지만, 죄를 기뻐하거나 축하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

이 관찮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만한 장소에는 가면 안 된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에도 갈 수 없고, 교회에도 갈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를 만들어 줘야 할까? 이미 만들어 둔 케이크를 그들에게 파는 것은 어떨까? 나는 동성 결혼식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동성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은혜와 진리 사이의 긴장을 해쳐 나갈 때, 그 결정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소망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동성 결혼식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 묻는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사랑은 죄를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다음에 양심을 따르라.”



원문 영상 QR

“은혜와 진리 사이의 긴장을 해쳐 나갈 때,
그 결정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소망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고 일깨워 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죄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이 속임수로 가득한 사업적 관행이든, 탈의실에서 하는 비열하고 저속한 대화든, 양파 같은 괴롭힘이든, 성적 부도덕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들

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어려운 점은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는 선을 어느 지점에서 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다음에 양심을 따르라. 내가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적 전쟁

〈창세기〉의 질문, 오늘의 기준을 묻다



윤상우 집사
(온민음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이 도전은 과거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판단과 시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은 누구의 말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그분을 모든 것의 근원과 기준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시대정신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다.

〈창세기〉는 단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밝히는 복음의 기초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신앙의 여러 영역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과 우주만 지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과 역사, 관계와 공동체, 지식과 학문, 언어와 문화, 재정과 소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

“말씀은 현실을 피하게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보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는 빛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무엇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 돈을 벌고 쓰고 나누는 방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여야 한다. 주일예배 뿐 아니라 일터와 가정, 배움과 소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무관한 영역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

재이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있다. 타락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졌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품는다(계 21:4).

이 고백은 단지 교리의 문장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 관계와 가정의 의미,

교육과 사회의 방향을 판단하는 토대다. 또한 상처 입은 세계가 영원히 이 모습으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거라는 소망의 선언이다.

반면, 인간 중심 세계관은 인간을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게 만들고, 도덕과 생명의 기준도 사회적 합의나 개인의 선택에 맡기게 된다. 그 결과 결혼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제

도가 되고,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목적보다 성공과 경쟁, 자기실현을 앞세우게 된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기보다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언어는 진실과 사랑을 전하기보다 욕망과 권력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재정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만족을 보장하는 우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위에 다시 서는 일이다. 이는 논쟁에서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생활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다. 교회는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의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가정은 다음 세대가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도는 과학과 문화, 경제와 정치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주장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배후에 어떤 세계관이 놓여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말씀은 현실을 피하게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보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는 빛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다.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한국 교회 성도 1만 7천여 명 참석



한국 교회 성도 1만 7천여 명이 회개와 부흥을 위해 부르짖었다. ‘714연합기도대성회’(이하 714기도회)가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사 62:6)를 주제로 지난 7월 17일(금)과 18일(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막 올랐다. 그 현장에 다녀왔다.

/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기자

7월 17일(금) 오후 4시, 집회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발 디딜 틈 없이 기도의 용사들이 자리했다. 무더위도, 좁고 불편한 환경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신길교회 찬양팀이 문을 열었다. 환영인사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714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했다. 이목사는 “한국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식구가 되어서, 한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세션 1’ 설교는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714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왕하 20:1-6)를 주제로 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안광복 목사(상당교회)와 이해영 목사(성민교회)가 인도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한국 교회가 회개와 기도에 앞장서기를, 한국 교회 연합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세션 2’가 시작됐다. 더사랑의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유기성 목사(위지엠 대표)가 환영 인사를 했다. 유목사는 “한국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714기도회에서 멈추지 말고, 일상에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말씀은 이인호 목사가 ‘미스바, 기도의 통치와 승리’(삼상 7:5-12)를 주제로 했다. 이목사는 “죄를 덜 짓는 것 보다 여호와와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취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기도회는 김도훈 목사(동산교회)와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가 인도했다. 한국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박해받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부르짖었다.

김선아 전도사(선한목자교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 뜻깊었다”면서 “714기도회가 더욱 확장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7월 18일(토) 오후,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성도들을 맞이했다. 정순자 권사(수원 온누리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을 맞이하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집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세션 3’은 CCM 밴드 아이자야썬스티원이 포문을 열었다. 환영 인사는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했다. 김목사는 “우리의 교만과 지식, 배경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말씀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절망을 거부하는 믿음’(렘 29:10-13)을 주제로 전했다. 문목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 생긴다”면서 “절망을 거부하고, 소망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도회는 이요한 목사(수원순복음교회)와 류성룡 목사(홀어진화평교회)가 인도했다. 한국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 다음 세대, 소외된 자,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강선희 권사(양재B공동체)는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참가했다”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새삼 깨닫고, 일

상에서도 기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했다.

오후 4시 40분,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세션 4’의 시작을 알렸다. 말씀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714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그 성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창 18:20-33)을 주제로 선포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은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위해 부르짖을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제가 이 성을 위해 서겠습니다’라고 응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도회는 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와 남경우 목사(GMTC)가 인도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를 위해, 한국 교회 모든 선교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20만 2천2백8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를 위해, 전 세계 실향민과 난민들을 위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다 함께 부르짖었다.

최영선 전도사(더사랑의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지만 세부적인 현황 등은 알지 못했는데, 정확한 수치와 대상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줘서 좋았다”면서 “앞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북한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온 세대 연합의 장(場)

‘세션 5’는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아이자야썬스티원의 찬양이 집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특히 ‘세션 5’에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다음세대가 함께 참가해서 온 세대 연합의 장(場)이 펼쳐졌다. 남녀노소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 기뻐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인사는 이재훈 목사가 했다. 이목사는 “매년 이어지는 714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어나고, 변화될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메시지는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9)를 주제로 전했다. 이목사는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이끌었음을 깨달았다”면서 “먼저 팔을 벌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기도회는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와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가 인도했다. 교회마다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한국 교회의 선교 열매와 신앙의 전통이 다음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도록, 다음세대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기도했다.

정호영 형제(SNS청년부)는 “한국 교회가 교단과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영광”이라며 “나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매년 7월 열리는 한국 교회 연합기도운동이다. 향후 5년 이내 한국 교회 8천 개가 연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714기도운동본부에서는 매일 사회변혁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제공하고, 13개 지역 단위의 연합기도모임도 하고 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일본

800만 신이 존재하는 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가 15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은 여전히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 일본. 많은 사람이 일본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는 하나님은 결코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첫 모임을 가진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열 번의 모임에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 종교를 배우며 일본을 이해해 갔고, 일본어 찬양을 준비하며 마음으로 먼저 현지 성도들을 만났다. 모임 때마다 함께 기도했고, 하루 세 번 단체대화방에서 기도문을 나누며 하나님께 아웃리치를 맡겨 드렸다.

먼저 방문한 곳은 기후현 미야마복음교회였다. 개척한 지 3년 되었는데, 등록 교인은 두 명뿐이었다. 정경란 선교사님이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지만, 굳게 닫힌 일본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사람의 왕래조차 드문 시골 마을에서 작은 선물과 초청장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마을전도를 했다.

그다음 날 열린 작은 마을잔치에 성인 다섯 명과 어린이 두 명이 참석했다. 그날 선포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사역을 마치고 정경란 선교사님께 축복송을 불러 드리고 꼭 안아드리는 순간, 척박한 땅을 오랫동안 홀로 지켜 오신 선교사님의 마음이 고스란



영등포구로공동체의 환영을 받으며 기후현 미야마복음교회로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

히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다.

17년 동안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키코모리로 살아온 마리꼬 상도 잊을 수 없다. 선교사님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기도를 받던 모습,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도록 꼭 기도해 달라”는 선교사님의 간절한 부탁이 지금도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방문한 나고야온누리교회는 설립된 지 18년 되었다. 차세대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 성도 4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전도사나 간사 없이 목사님 부부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고, 반주자가 없어서 영상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찬양 사역자와 반주자, 다음세대를 세워갈 헌신된 일꾼들이 속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목사님 부부를 위해 축복기도를 드리고 사모님을 안아드렸는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 묵묵히 사역의 자리를 지켜 오

신 두 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가쿠테교회는 한국인 목사님 부부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였다. 요리교실 같은 문화사역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으로 품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세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방팀을 비롯해 말씀과 찬양, 진행, 운전, 사진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준 모든 팀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경험했다.

아웃리치를 마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고, 이번에 만난 일본의 교회와 영혼들을 잊지 않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함께 동역한 모든 팀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미경 권사
(영등포구로공동체)

과천의왕공동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뉴트란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아섹 기드온(Asek Gideon) 목사입니다. 저는 아내 유니타 사모, 그리고 결혼 이후 어렵게 얻은 여덟 살 딸 조이와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1년 역사를 품고 있지만,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은 영육 간에 치열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6개 종교를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슬람교를 우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강제로 해산되거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령화, 경제적 빈곤이 매우 심각했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 역시 낮은 상태였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무슬림과 결혼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혼전 임신 등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공동체를 등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아내와 저는 젊은 세대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말씀 교육에 사활을 걸고 눈물로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초등부와 중등부 35명이 예배와 훈련에 정진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훈련시킨 한 청년을 고향 섬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과천의왕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족자카르타 뉴트란침례교회에서 세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 부부와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청소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와 고아원 형태로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8명의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청소년 3명이 족자카르타대학교에 입학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족자카르타에서 BEE 사역을

하는 김말순 선교사님 소개로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 아이들 8명과 저희 부부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세족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풍성한 선물과 함께 맛난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세족식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난생처음 겪는 생소한 의식이었습니다. 연공서열이 철저하고, 어른을 극진히 대우하는 인도네시아 자바 문화권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

는 행위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세족식을 단기선교팀이 준비한 하나의 이벤트로만 여겼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족식이 시작되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 보는 그 낮은 섬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족식에서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죄와 상처까지 씻겨 나가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목사인 저부터 앞으로 교회 리더들과 아이들을 향해 먼저 무릎 꿇고 세족식으로 섬기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족자카르타까지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 아웃리치팀과 김말순 선교사님,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그 사랑의 흔적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바꾸는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섹 기드온 목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뉴트란침례교회 담임)

미래를 바꾸는 거룩한 씨앗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9월 20일 첫 방송, 방송인 장성규 MC 발탁

CGN 풍당이 선보이는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오는 9월 20일(일) 첫 방송을 한다.

‘힐링보이스’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찬양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글로벌 CCM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지원이 이어졌다. 6세 미취학 아동부터 8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은 물론이고, 직장인, 보컬리스트, 배우, 개그우먼, 걸그룹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 1,602명이 지원했다.

힐링보이스 MC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맡는다. 장성규는 “최근 다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던 시기에 ‘힐링보이스’ MC 제안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기도



오늘 9월 20일(일) 첫방송하는 ‘힐링보이스’ MC를 맡은 장성규.

응답해 주신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첫 녹화를 마친 ‘힐링보이스’는 오는 9월 20일(일) 풍

당 앱과 CGN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 150여 명 참석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가 지난 7월 19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열렸다. 제이홈-온누리울타리 리더십, 입양·위탁·결연 가정, 자립준비청년 멘토, 고아사역 관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 세미나는 1부 예배, 2부 사역 소개, 3부 사역 상담으로 진행했다. 1부 예배에서는 손정훈 목사 대표기도, 제이홈 특순, 이종락 목사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베이비박스 설립,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메시지,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말씀은 이종락 목사가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 (요 3:16)을 주제로 했다. 이 메시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이들만 2,216명이고, 그중에서 1,400여 명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교육선교스쿨 7기 참가자 모집

7월 25일~8월 29일 온누리청소년센터

온누리 교육선교스쿨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감성함양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8월 1일(토)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선교사

무료). 온누리 교육선교스쿨에서는 성경속의 교육과 교육선교, 교육선교의 역사, 현대교육 환경 안에서의 진리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5주 차에는 교육선교 현장 탐방을 한다.

문의: 010-4738-9094

/ 박지혜 기자



프리덤스쿨 34기 참가자 모집

회복사역본부 프리덤스쿨 3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4시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27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7만 원(강사료와

식비, 1박 2일 수련회비 포함).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프리덤스쿨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체성과 참된 자유를 되찾도록 돕는 회복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896-2477

NGO 더멋진세상,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장애인, 아동, 노인 등 900여 명 구호물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대규모 지원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및 카라카스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은 지난 7월 15일(수)과 16일(목) 현지 병원, 어린이 시설, 이재민 쉼터 등지를 찾아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900여 명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 활동은 이정엽 목사(더멋진세상 LA지부장, LA온누리교회 담임)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온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소속 백석희 선교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

시했다. 현지 선교사는 의약품, 식료품,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현지에서 조달했고, NGO 더멋진세상 전문위원 강찬욱, 성광제 장로, 이정엽 LA지부장, TIM 멕시코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가 UBF측과 협력해서 물품 포장과 현장 배분을 맡았다.

강찬욱 장로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교회와 선교단체, NGO와 기업, 전문가와 평신도가 경계를 넘어 연합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팀 켈러, 죄를 말하다〉 판매 1만 부 돌파

두란노서점 및 온·오프라인 서점 구매 가능

두란노서원에서 펴낸 〈팀 켈러, 죄를 말하다〉가 출간 2개월 만에 판매 1만 부를 넘어서며 11쇄를 발행했다. 기독교 독자들이 주목하는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은 팀 켈러 목사 별세 이후 처음 발간된 신작으로, ‘죄’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두란노서점 및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만8천 원이다.

책 〈팀 켈러, 죄를 말하다〉는 세상

인의 무너짐을 환경이나 제도의 문제

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인간의 죄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다. 이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가 선명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짚고 싶은 목회자,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신앙에 의문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함께 걷는 친구들

양재 병원전도사역팀, ‘요양병원 작은 음악회’ 개최

양재 병원전도사역팀이 지난 7월 11일(토) 서초참요양병원 로비에서 요양병원 작은 음악회 ‘함께 걷는 친구들’을 개최했다. 환자와 간병인, 양재 병원전도사역팀 리더십 및 봉사자, 병원 스태프 등 75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Joyful Kids Player’s(단장 강소연) 공연, 개인별

복음 메시지 전달,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김진기 성도(연주 봉사자, 도곡1부 챔버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며 환우들에게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 모집

9월 5일~19일 매주 토 대학로 이룸

사단법인 행가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학로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결혼비전스쿨 With4U는 〈예배소서〉 5장 말씀을 비전으로, 사랑과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

계를 가정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 강미향 목사(두란노부부학교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5059-4459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15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정의와 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하며, 일상에서도 큐티를 지속하도록 도와준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31-1284

이명자 작가 작품전 8월 4일까지

이명자 작가 개인전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라’가 8월 4일(화)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열린다. ‘그날에는’ 등 작품 43여 점을 전시한다.

문의: 010-3128-2332

7월 세례자

〈서빙고〉	오시은 260211
문찬호 621025	오지웅 김고운
배성은 711122	이나준 250904
서보경 730623	이원균 송한나
이경찬 750316	이지호 251215
이지원 720502	이태제 박민주
이지은 871214	조하준 241209
전태규 931203	조성근 이민정
입교	
김현학 990221	〈양재〉
유아	김좌석 670429
김주원 250520	김형범 780209
김유빈 이유민	이은정 811117
김하나 240731	입교
김형재 이예린	주현민 070626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여름 사역, 안전한 출발과 귀가로 완성 반드시 점검해야 할 안전관리 수칙

매년 여름은 교회 수련회와 캠프, 국내외 아웃리치 등 다양한 사역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대부분 사고는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이다. **여름 사역은 안전한 출발과 안전한 귀가로 완성된다.**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모든 캠프와 아웃리치팀은 팀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참가자 명단과 비상연락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수단과 숙소, 활동 장소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와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활동 중에는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출발 전 안전 점검 실시

출발 전에는 참가자 명단과 보호자 연락처, 기저질환 여부와 복용 약물, 응급약품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 위험 요인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비상 대피 동선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 휴식 여부, 숙소의 비상구와 대피로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보험 가입 필수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 수련회와 캠프, 아웃리치, 해외 단기선교 등 모든 교회 활동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회의 단체보험이 실제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행자보험이나 추가 상해보험 가입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해와 질병 치료, 배상책임, 응급의료 이송 등 필요한 보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사고 후의 보상이 아니라 출발 전에 준비하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 개인 행동 금지

여름철 안전사고는 혼자 이동하거나 단독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가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함께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솔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놀이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 산책, 야간 이동, 숙소 밖 활동도 단독 행동을 피하고, 인솔자의 허가 확인 아래 이루어

져야 한다. 혼자 가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

■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계곡과 하천, 바다,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장소만 이용해야 한다. 안전요원과 인솔자를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리한 다이빙이나 위험지역 출입은 금하며,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상 악화나 수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즉시 변경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저질환자와 폭염 대비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참가자는 출발 전에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솔자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무리한 활동은 조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의료기관

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와 음식물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교회 비상연락망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경위를 기록하고, 보험사와 교회 담당 부서에도 즉시 보고해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름 사역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출발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까지가 사역의 완성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올여름 모든 공동체가 철저한 안전 점검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지키고, 은혜롭고 안전한 사역을 하기를 기도한다.

해외 아웃리치 안전관리 수칙

■ 위험 및 보안지역의 이해와 소통

위험 및 보안지역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구역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을 말한다. 북한 접경 지역(정치적 위험), 이슬람/힌두/불교 국가 등 공개적 선교가 금지된 지역, 무슬림 급진주의자나 전쟁, 테러 및 납치 위험지역이 포함된다. 분쟁지역, 중국, 중동(무슬림) 전 지역,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해당한다.

■ 보안 용어 사용

보안 지역과 전화 또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연락할 때는 일반 용어 대신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선교사는 ‘선생님’, 교회는 ‘회사’, 공동체는 ‘부서’ 또는 ‘팀’으로 부른다. 추가 문의는 2000선교본부로 하면 된다.

■ 아웃리치 사전 준비 및 기본 자세

겸손과 존중

문화적, 종교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현장을 이해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팀의 행동이 가족, 선교사, 교회 등에 미칠 파장을 인식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선교사와의 협력

사역은 현장 전문가인 선교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하고, 현지에서는 선교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또한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선교사를 격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한다.

건강 및 일정 관리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한다. 전염병 위험지역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인천국제공항 국립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팀원 간 건강을 서로 체크한다.

일과 및 영성

일과 이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여행일지를 기록한다.

■ 현장 안전 및 행동 요령

단체 행동 및 복장

눈에 띄는 단체복 착용은 금지하고, 평범한 복장을 착용한다. 특히 보안지역에서는 단체 행동보다는 소수팀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험 노출 최소화

야간 통행을 자제하고, 테러 위험지역에서는 랜드마크 등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피해야 한다. 숙박은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권장하고, 팀의 동선과 활동내역을 SNS에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

개인 행동 통제

단독 행동이나 전체 동선을 이탈하는 개별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식수 및 현지 음식 취식에 주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사역 과정에서 주의사항

타 종교 사원 주변에서 공연이나 개별적인

전도 행위는 현지 선교사를 추방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한다. 모든 사역은 선교사의 통제 아래 진행해야 한다.

■ 위기 상황 및 사고 발생 대처 요령

위기 요인

- 질병 발병/전염병 감염(설사, 감기, 발열, Dengue, 말라리아 등 풍토병)
 - 행정적 소홀과 착오로 인한 어려움(출입국, 세관, 통행 제한 등)
 - 교통사고,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
 - 천재지변(태풍, 지진, 홍수, 해일 등)
 - 범죄, 법위반, 폭력 등 가해자로 고발 구금, 구속
 -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동기로 인한 공격
 - 전쟁, 내란, 소요사태, 폭동 등 긴급 사태
- ‘선 조치, 후 보고’ 원칙**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한

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정보 통제 및 보고체계

SNS 등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 상황이 외부로 임의 확대 및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고체계

현장 조치 이후, 현장 선교사와 2000선교본부 및 담당 교역자에게 상황(조치 사항, 향후 진행 상황 및 예상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본부와 수시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2000선교본부 아웃리치 위기대응팀
연락처: 02-795-9085(선교본부)
카카오톡ID: crusaderkys

/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 위기상황 및 위기 대응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성1로 2길 61 2층 ● 인천 ●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 김태웅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건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평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엘바인 ●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 박재영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 시카고 ●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N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t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 요코하마 ●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3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 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고토 ●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성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웅 최영민			
●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현술 김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강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지형 럼문용 문영재 김선호 박성진 박성훈 박정중 박철용 박성원 박정훈 박준양 배행삼 배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성 신경훈 신대중 신원식 신주용 손정훈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진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길준 율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바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현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이현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장선진 장재원 장희성 장지윤 장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현상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용 최성규 최성민 최용운 최재윤 최충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충희 해틀드림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 영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몽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라드팩스 박자인 박영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중훈 추교명 합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향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의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숙 오지원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진 최정영 최은희 최원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우석			
해외 온누리교회 ●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트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경영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원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민 김정은 김진우 김창호 김향선 김형중 남진욱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승훈 박중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민 배성우 변범식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안성진 염영기 우윤상 유영종 유영순 이영호 이도우에 마키 이탁주 이미령 이서원 이승윤 이주영			
이청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사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몽운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중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성욱 김정식 마커스 백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다혜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진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진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전해선 최원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정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운 권택수 권우중 김경덕 김정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남 영 노홍근 백남인 백호현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한태중 홍규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강승집 강재동 강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우철 박호택 서현재 송태민 신승훈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상현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전수열 정한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최경우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유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 명예장로 김영선 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관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광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광고

구립온누리어린이집 교직원 모집
모집: 보육교사(담임) 4명, 보조교사 2명, 연장반 교사 1명
자격: 2, 4년제 유아교육과 및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지원: 이메일(kseung05@naver.com) 접수
문의: 02-6953-5845

온누리선교재단 커피숍 정규직원
모집: 양재 커피숍 바리스타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 2년 이상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www.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제자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마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배,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와 상 어르신
내용: 이마음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마음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자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가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본, 차배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기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 **현금관리 안내**
● **현금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태돌아치로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7/16(목) 양재B 이경희 성도 모친상, 고명실
7/18(토) 이촌 임재용 집사 모친상, 임경선 권사 모친상 고 백옥숙
7/18(토) 고양은평 이지는 성도 시모상 고 강경자
7/19(일) 신용산 황재숙 권사 배우자상 고 유배근
7/19(일) 양재A 장충식 성도 부친상, 조이정 성도 시부상 고 장필수 요셉
7/19(일) 강남C 임은정 성도 시부상 고 김평근
7/20(월) 고양은평 윤동경 선교사 부친상 고 윤월일
7/20(월) 강남A 이창배 성도 모친상, 박혜성 집사 시모상 고 최미대자
7/20(월) 서초C 안동현 성도 빙모상, 전영의 집사 모친상 고 박문자
7/20(월) 분당B 김해경 성도 부친상, 정철진 성도 장인상 고 김집태
7/20(월) 분당A 유도경 권사 시부상 고 오영택
7/21(화) 영등포구로 윤정희 성도 모친상 고 장화례
7/21(화) 고양은평 장은경 집사 모친상, 김학민 집사 빙모상 고 김집애
7/22(수) 성북 문은국 성도 부친상, 채은미 성도 시부상 고 문병길
7/23(목) S브릿지 남수경 권사 부친상 고 남주희
7/23(목) 2000선교 고 김현기 선교사
7/23(목) 일신파주 유재원 권사 배우자상 고 김준중
7/23(목) 강남B 박현정 성도 모친상, 강남A 안정현 성도 시모상 고 서근민